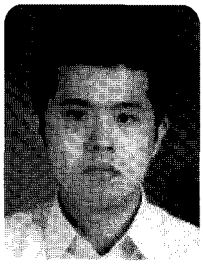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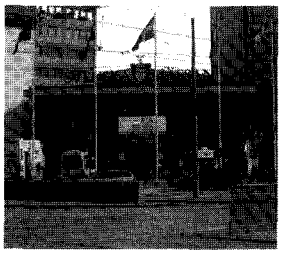
사서가 들려주는 해외 도서관 이야기 1

2010 예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다녀와서



박 현 우
한국도서관협회 사업운영팀원
hw99@kla.kr

2010 예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스웨덴의 제2도시인 예테보리에 있는 스웨덴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10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6일간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Open access to knowledge)"라는 주제로 147개국에서 3,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협회 이은철 회장을 단장으로 약 70여명의 국내 각 도서관장 및 실무자가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스웨덴전시컨벤션센터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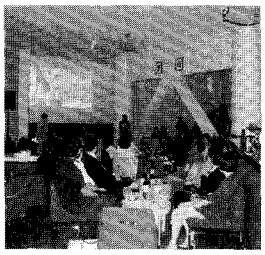
▲대회장 내 등록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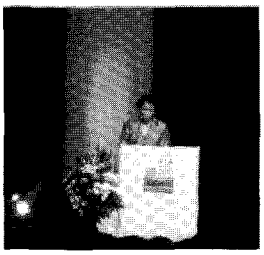
○ 한국어 참가자 모임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 주관하는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공식 프로그램인 언어별 모임으로 한국어 참가자와 한국에 관심 있는 참가자 모임이 8월 10일 18시부터 컨벤션센터 J1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어 참가자 모임은 2009년 밀라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이어 두 번째 모임으로 올해는 우리협회가 주관하였다. 이 모임에는 이은철 회장, 모철민 前 국립중앙도서관장(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 축하인사를 했으며, 엘렌 티세 IFLA 현 회장과 블레맘보타타 IFLA 이사가 직접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우섭 위스콘신주립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와 박재섭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장이 국내외 도서관현황에 대한 특강을 했으며, 한국인 프로그램 발표자 및 포스터세션 발표자, 한국 전시관계자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한국어 참가자 모임을 통해 한국의 도서관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한국어 참가자 모임


▲한국인의 밤 행사 모습


▲엘렌 티세 IFLA 회장

▲개막식 축하공연 모습

○ 한국인의 밤

8월 10일 21시부터는 우리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인의 밤 행사를 이번 예테보리세계도서관대회에 참석한 70여명 한국인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우리 대표단의 숙소인 고티아타워호텔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하였다. 이은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가자들 간의 상견례가 있었으며,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번 대회에 참가한 계기와 관심 있는 발표주제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개회식

8월 11일 오전 11시에는 컨벤션센터 1층 개회식장에서 147개국 3,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도서관이 지식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민주화를 더욱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엘렌 티세(Ellen Tise) IFLA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이 세계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며 인류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스웨덴 외무부장관과 유엔총회의장을 역임한 얀 엘리아손(Jan Eliasson)씨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또한, 아그네타 올손(Agneta Olsson) 2010 예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통해 스웨덴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연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렇게 개회식에서 주요 인사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서관 사서를 위한 옹호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동대회가 전 세계 도서관의 가교역할은 물론 교류의 장이 되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이후, 스웨덴 대표 그룹인 아바그룹의 노래를 중심으로 개막 축하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개회식장과 별도의 공간인 리셉션장에서 연어요리와 감자샐러드 등 풍성한 요리와 와인과 맥주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면서 개회식 축하파티가 이어졌다.

○ 전시와 포스터세션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 전시는 도서관 및 세계도서관정보화 관련 회사인 3M사와 미국도서관협회 등 주요단체 100여개 기관에서 도서관 관련 서비스 및 홍보 관련 부스를 설치하여 각국의 새로운 도서관 관련 기술들을 선보였으며, 부대시설로 카페테리아와 인터넷카페가 운영되었다. 전시개막과 전시파티가 현장에서 함께 열렸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도서 소독 관련 우리나라 전시관계자인 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와 아이브이에스사가 참가하였다. 또한, IFLA부스에서는 2011년 푸에르토리코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홍보하며 참가자를 환영해 주었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총 179개의 포스터세션이 있었다. 이중에는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박재섭 관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류범종 지식기반실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서비스실 김혜선 선임연구원, LG상남도서관 배경재 기획팀장, 국립중앙도서관 류은영 사서, 위스콘신주립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정우섭 교수등 우리나라에서도 6명이 포스터세션에 참가하였다. 전시장 내에 있는 포스터세션장은 전시를 관람을 하는 참가자들과 포스터세션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발표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전시장 내 IFLA부스에 모인 참가자

▲포스터세션을 관람하는 참가자

▲야외에서 전시중인 이동도서관

▲문화의 밤 행사

○ 주제발표

2010 예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와 IFLA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첫 참가자를 위해 IFLA의 목적과 구성, 대회 소개, 개최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첫 참가자를 환영하는 모임'과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발한 접근을 통하여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도서관의 혁신적 노력을 인정하여 상을 주는 '빌게이츠도서관재단 2010 배움의 기회제공상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5개

부회와 45개 주제별 분과에서 약 100여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도서관 분과 회의에서는 한국 등 세계주요 국가도서관의 오픈액세스를 위한 노력과 최근 국가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문화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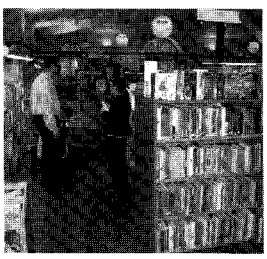
8월 13일 오후 9시에는 스웨덴전시컨벤션센터에서 도보로 5분정도 거리에 있는 Brewhouse에서 문화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Brewhouse는 평소 예테보리에서 콘서트, 음악회,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이다. 이날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스웨덴 음악 및 개막식 공연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스웨덴 유명그룹 아바의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서들이 함께 간단한 칵테일을 즐기며 음악들을 듣고, 댄스파티를 즐기는 흥겨운 자리였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예테보리시에서는 문화축제 기간으로 시내의 여러 공원에서도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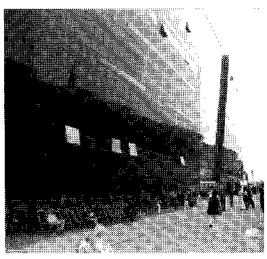
◎ 도서관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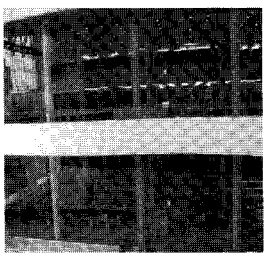
IFLA에서 주관하는 약 20여개의 방문도서관은 참가자들이 참가 등록 시 미리 방문하고 싶은 도서관을 신청한 후 선착순으로 방문도서관을 결정한다. 참가자들은 해당 방문도서관의 출발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각 도서관의 인솔자를 따라 도서관의 위치와 거리를 고려하여 버스, 트램 또는 도보로 각각 이동하여 도서관을 견학하였다. 또한 우리협회는 볼레뷔그즈공공도서관, 볼레뷔그즈학교도서관, 덴마크국립도서관,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 리가대학도서관, 리투아니아국립도서관의 견학을 직접 주관하였다.

IFLA공식 방문도서관인 예테보리시립도서관 일일이용자는 3,00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특징은 대출카드를 한 번 발급하면 관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단행본과 잡지를 대출할 수 있으며, 음악, 영화DVD, 컴퓨터 게임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3주이며,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대출기간을 확인하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60여개 이상의 언어로 된 단행본 35만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볼레뷔그즈공공도서관 영화DVD 및 신문


▲볼레뷔그즈공공도서관 내부


▲덴마크국립도서관 외부


▲덴마크국립도서관 내부

볼레뷔그즈공공도서관은 스웨덴 남부 예테보리 근교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8,800명으로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역시 전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전문도서관 등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1년 평균 1인당 대출권수는 13권으로 스웨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한다. 도서 중심의 장서구성에서 벗어나 영화DVD, 음악CD, 어린이 완구 등 다양한 매체를 비치하여 서비스하고 있었다. 또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여 전 지역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반납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덴마크국립도서관은 덴마크 북부 코펜하겐 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도서관으로 납본기능이 있어서 2권을 납본 받아 1권은 보존하고 1권은 이용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코펜하겐 지역은 대학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의 이용과 대학생이상의 연구 인력을 위한 공간과 인력이 국가도서관 기능을 위한 공간과 인력보다 많았다. 연간 이용자는 35만 명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다국적 언어로 된 덴마크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6만 페이지 정도라고 한다. 특징적인 공간으로는 사진 · 지도 코너로 20만개의 지도와 800만장의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옛 문헌인 필사자료를 별도로 복사 서비스하는 공간이 있었다. 또한, 여러 개의 도서관 건물 중 가장 나중에 지어진 건물은 벽면 전체가 검은 유리로 되어있어 일명 '블랙다이아몬드' 라고 불린다. 도서관 앞에 있는 강 위로 멋진 유람선이 다니는데 1층 북카페에서 앉아 바라보면 유원지에 나와 있는 기분이 들 정도다.

○ 세계 도서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시간

2010 예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 동안 사무실과 책 속이 아닌 넓은 세상에서 공통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서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147개국 3,300여명의 참가자중 우리나라 참가자가 70여명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년이 지난 지금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잊지 못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많은 외국의 사서들을 만나면서 고마움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